

곡성 배, 美 수출로 활로 찾는다

2000년 첫 수출 이후 매년 물량 늘어 신품종 생산 확대...선과장 등 설비투자도

고유가와 농자재값 상승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곡성 배 생산농가들이 미국 수출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99년 154t(4억2천600만원)의 캐나다 수출을 시작으로 해외시장 개척의 물꼬를 튼 곡성군 배 영농조합 법인은 2000년 7월 '미국 배 수출단지'로 지정된 이후 2001년 352t(5억6천900만원), 2004년 497t(11억2천500만원), 2007년 510t(10억2천만원) 등 매년 대미 수출물량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까지 수출된 물량은 3천522에 67억3천여만원에 달하며 올해는 600t(16억여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일 곡성군 목사동면 신진리에 위치한 '대미수출 배단지 선과장(選果場)'에서는 생산농가에서 봉지째 수확해온 햇배가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져 선별·포장 작업이 한창이었다.

한가위에 맞춰 부산항을 통해 선박편으로 미국 LA 등지로 수출될 조생종 '원황' 배들이다.

선과 라인 중간에서는 미국 농무성(USDA)에서 파견된 앨빈 T. 이리구치(61) 검역관과 광주 식물검역원 운영관(36) 검역관이 육안으로 배를 검사하는데 여념이 없다. 한·미 양국 검역관이 출하물량의 6%를 샘플 검사해 병해충이 없다는 서명을 해야 비로소 수출이 가능하다.

검역관이 가장 신경쓰는 것은 흑성병이나 응애와 같은 병해충 감염 여부. 지난 13일부터 검역 업무를 시작한 이리구치 검역관은 "현재까지는 배들이 병해충이 없어 수출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미국인들도 한국배 맛이 좋다(sweet)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올해 곡성지역에서는 70ha의 면적에서 배를 생산해 전체 물량의 70%를 수출하고 있다. 내수 시장



미국 농무성 검역관 이리구치(오른쪽)와 광주 식물검역원 검역관이 지난 19일 곡성배 영농조합법인 선과장 라인에서 미국으로 수출될 배를 검사하고 있다.

보다 해외시장 비중이 높다보니 생산 과정도 수출에 맞춰져 있다. 연초에 미국 농무성에 작업계획표를 보내고 규격봉지를 씌우거나 하면 농약도 미국 정부가 승인한 제품만을 사용한다.

또 3년 전부터 조생종 신품종 생산을 늘리기 위해 '한마음' 배를 새로 심거나 기존 배나무에 접을 붙이는 방법으로 1.6ha(8농가)를 조성했다. '한마음'은 성장속도 없이

도 8월 중순에 수확이 가능하며 당도가 13.8도로 높고 맛도 뛰어난 신 품종이다.

이재균(75) 미국배 수출단지 대표는 "앞으로 배 재배면적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한마음' 등 품종경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올 하반기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300여평 규모의 선과장을 증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

광양제철초 '어린이 통계활용대회' 최우수 단체상

광양제철초등학교(교장 박보영)가 최근 통계청에서 주최한 '제 10회 전국 어린이 통계활용대회'에서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했다. <사진>

광양제철초는 이번 대회에서 홍종원(6년)군이 금상을 수상했으며 전해진(6년)·주형우(6년)·안유민(5년) 학생이 은상, 황재진(6년)·구도성(5년)·심은솔(6년)·조영빈(6년)·김정우(6년) 학생이 동상을 수상했다. 또 11명이 장려상을 받는 등 참가 학생 21명 모두가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광양초 교사가 지도교사상을 수상했다.



시사회를 휩쓸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초등학생 5천469명이 참가했으며, 시상식은 통계의 날인 다음달 1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광양시, 순천대 지원 강행키로

행안부 "지원 불가" 유권해석 불구 매년 광양캠퍼스 50억씩 지원

광양시가 '자치단체가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순천대 광양캠퍼스 지원을 강행한다.

광양시는 오는 25일 광양시장과 순천대 총장, 사회단체, 기업인, 상공인, 시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캠퍼스 설립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광양캠퍼스의 차질없는 설립을 결의할 계획이다.

이날 이상용 광양시장과 정만태 순천대 총장은 지난달 광양시의회를 통과한 광양시의 순천대 광양캠퍼스 설립 관련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에 서명한다. 광양시는 광양캠퍼스 지원 예산 명

목으로 50억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2019년까지 600억원의 발전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지방재정을 교육기관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만큼 광양캠퍼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계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현행법상 시·군 자치구가 중·고교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나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할 근거가 없다"며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순천대학교는 3~4개 학과 규모의 대학원 중심 공대학과인 가정·글로벌 특성화 공과대학 광양캠퍼스'를 설립해 오는 2010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가을 재촉하는 조(粟)... 함평군 대동면 고산동마을 들녘



처서(處暑)를 앞둔 21일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고산동마을 들녘에 조(粟)가 황금 색으로 물 들어가고 있다. 조는 한때 보리 다음으로 많이 재배됐던 밭작물이었으나 요즘은 농촌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함평군 제공>

해남 국도 77호선 '반쪽도로' 전략

247억 들여 10년 만에 완공... 목포 방면 운정리 쪽 도로 끊겨 우회 통행

247억 원을 들여 10년 만에 완공된 해남의 국도 77호선 한쪽이 간선도로와 연결되지 않고 끊겨 있어 '반쪽 도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남군 화산면 운정리와 송지면 송암리를 잇는 연장 4.7km의 왕복 2차선 '화산~가차 도로'는 사업비 247억 원이 투입돼 차공 10년 만에 최근 마무리됐다.

이 도로공사는 목포에서 해남 화원과 황산을 거쳐 땅끝까지 연결되는 국도 77호선이 중간에 끊긴 것을 운정리~송암리 구간 지방도를 이용해

있는 사업이다.

애초 지방도가 시작된 탓에 전남도가 공사를 시작했고, 2002년 이 도로가 국도 77호선으로 편입돼 국토관리청 관할이 됐다. 하지만 최초 사업발주처가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남도가 공사를 끝마쳤다.

도로 완공으로 이 구간 땅끝 방면 송암리 쪽은 국도 77호선과 이어졌으나, 목포 방면 운정리 쪽은 국도 77호선 옆 2km 정도 남기고 도로가 끊겨 차랑 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목포 방면으로 가려면 다시 현산 면으로 우회해 기존 국도 13호선을 이용해야 한다.

이처럼 도로가 중간에 끊긴 것은 설계 당시 지방도와 국도 77호선의 연결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2년 도로가 국도로 승격되면서 관할 행정기관이 전남도에서 익산관리청으로 변경되면서 양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차공 여부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전남도는 도로 관할 관청인 익산국

도관리청이 마무리 공사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익산관리청은 최초 발주기관인 전남도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도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로서는 과도할 만큼 예산을 투입해 공사를 마친 만큼 나머지 구간은 국토관리청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현재 도로공사 계획은 없으며, 새로 도로를 개설하려면 타당성 조사부터 해야 하는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해 상당 기간 주민 불편이 계속될 전망이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해남 고구마 유럽 간다

올 10월 60t 수출 계약 체결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남 고구마가 오는 10월 유럽으로 수출된다.

해남군은 aT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함께 최근 네덜란드 유통회사와 실무협상을 통해 해남 고구마 60t을 연내에 수출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 동안 남미산 고구마를 수입해 온 네덜란드 유통회사는 해남산 고구마 품질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수입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오는 11월 현지 수입업체 주선으로 유럽 최대 식품판매회사인 테스코 매장을 통해 해남 고구마 홍보행사를 갖고 유럽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건설·식품업체 '부패 제로' 선언

목포시, 업체대표·회원 등과 반부패 협약 체결

목포시가 건설·식품업체와 반부패 협약을 맺는 등 '부패 제로(Zero) 청렴 목포'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목포 지역 건설업체, 식품위생업협회 대표,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업체 대표들은 이날 ▲부패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부패방지 체계 구축 및 노력 ▲탈세나 불법거래 행위 하지 않기 ▲촌지, 전벌금, 딱값 일

체 주고 받지 않기 등 7개 항의 이행사항 준수를 다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공직자 뿐 아니라 공무원과 유기적 관계에 있는 관련 업체들의 자발적이고 협조적인 노력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2006년 청렴 개선도 전국 1위의 영예를 차지했던 목포시는 그동안 수의계약 범위 축소, 민원처리과정 공개, 시민 명예 감사관제 운영 등 청렴 우수기관으로서의 명성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한국 강의 날' 대회

23일까지 나주 동신대서

'제 7회 한국 강의 날 대회'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나주 동신대에서 열리고 있다.

환경보존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일반인들에게 환경보존 의식 확산을 위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89개 환경단체와 환경 전문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행사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환경보존 사례발표, 영산강유역 체험행사, 환경포스트 전시, 환경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특히 토론회에는 김재승 강삼리기 네트워크 공동대표와 제종길 맑은물포럼 공동대표 등 환경 전문가들이 참가해 일반인들도 실천 가능한 다양한 환경운동 사례가 제시됐다.

/나주=최철형기자 srchoi@

완도해경 실종 낚시꾼 수색

갯바위 낚시꾼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완도해경(서장 김두석)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께 청산면 상도 갯바위에서 바다낚시를 하던 김태원(29·충북 청주시)씨가 실종됐다.

완도해경은 신고를 받고 경비정을 급파해 수색작업을 벌이는 한편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완도=정은호기자 ejchung@

"안심하고 농사 지으세요"

농촌공사 나주시농업용 수로에 안전시설 설치

한국농촌공사 나주시(지사장 임유식)가 관내 주요 농업용 수로에 인명구조용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나주시는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사고 및 행락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봉황간선 13km 구간에 구조용 로프 180개를 설치했

다. <사진> 이곳은 수로 폭이 넓고 물 흐름이 빨라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임유식 나주시지사는 "로프 설치로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형기자 chung@

대나무골 '음식문화 업그레이드' 운동

로고 새긴 접시·얇치마 공동 사용

담양군이 맛의 고장으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내 모든 식당에서 같은 접시와 얇치마를 사용하는 '음식문화 한차원 더 높이기 운동'을 전개한다.

담양군은 '대숲맑은 맛의 고장 담양'이라는 로고가 적힌 접시(사진) 4천개를 제작, 대형 음식점과 관광지 주변 음식점 100여곳에 시

범 사용하도록 한 뒤 모든 업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난 5월 대나무죽제를 계기로 제작했던 위생 얇치마와 위생모도 추가로 제작해 전 업소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군은 죽순요리와 망태버섯요리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음식 개발과 보급을 위해 요리 책자를 발간, 모든 업소에 배포하고 유명



맛집과 음식 명인·명가 등을 소개한 요리 가이드북도 제작해 관광 안내소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담양=정필수기자 bungy@